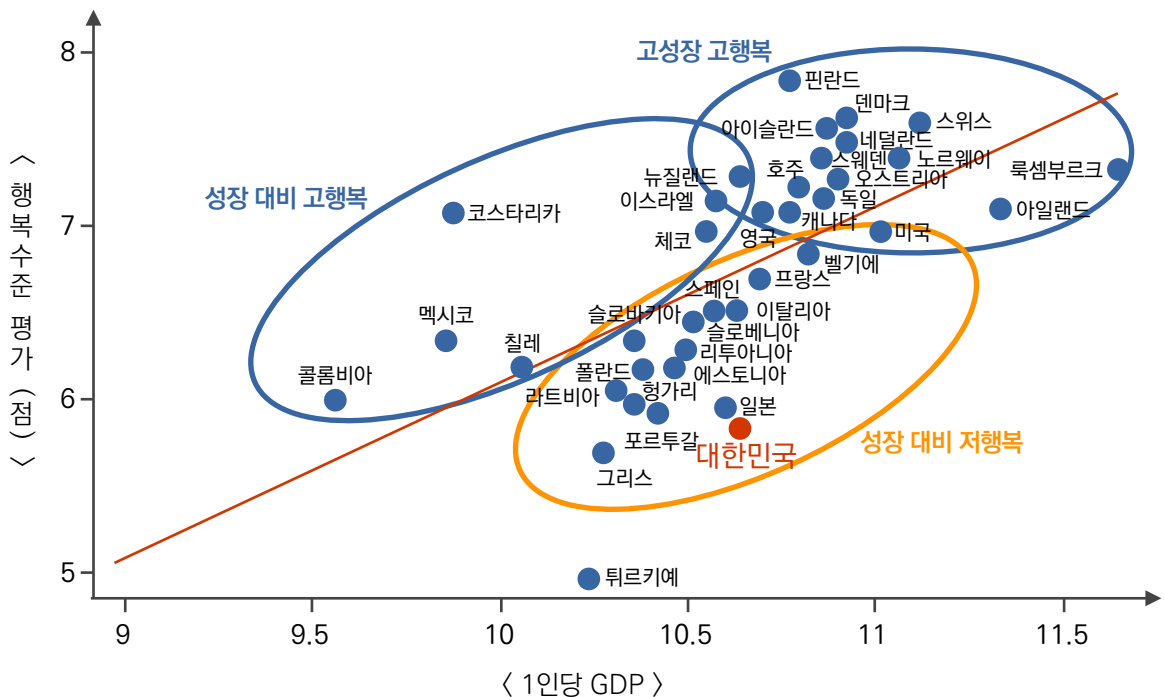




한국인, 경제 성장 수준 대비 행복하지 않다!

- ▶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(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, UN)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(World Happiness Report)에 따르면,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50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. (총 95개국 조사, 2020)
- ▶ 행복 수준과 GDP 수준을 비교했을 때, 한국은 '성장 대비 저행복'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.

[그림] OECD국가의 경제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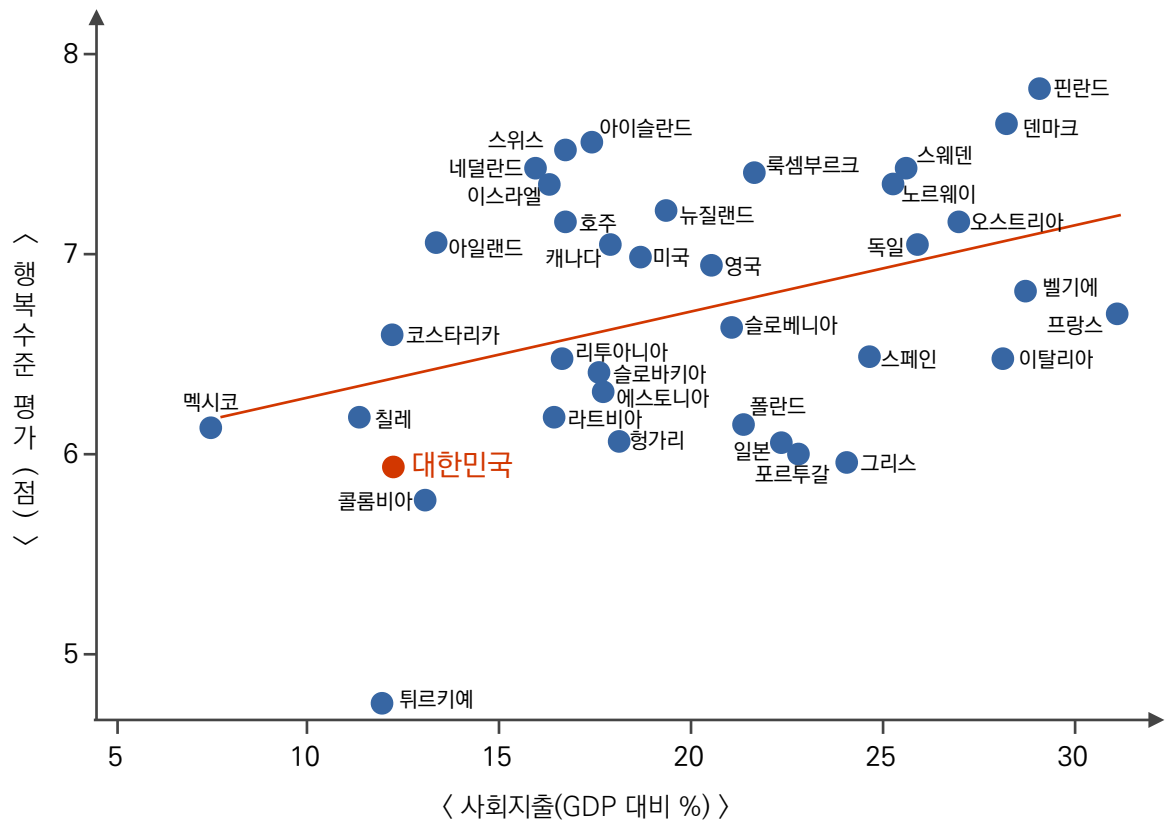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 'KOSTAT 통계플러스'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'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?'
 (행복 수준 평가는 '2021년 세계행복보고서' <https://worldhappiness.report/ed/2021/happiness-trust-and-deaths-under-covid-19/>에서 저자가 발췌)

◎ 한국의 복지 수준,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!

- ▶ 국회예산정책처의 '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' 보고서(2021.2)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.2%로 OECD 평균(20.0%)에 비해 한참 낮으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이다.
- ▶ 사회지출 규모로 측정하는 복지국가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,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 수준과 복지국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(행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통계 구축)수행 등 대책이 필요하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복지국가(사회지출) 수준과 행복 수준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 'KOSTAT 통계플러스'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'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?'
 (행복 수준 평가는 '2021년 세계행복보고서' <https://worldhappiness.report/ed/2021/happiness-trust-and-deaths-under-covid-19/>에서 저자가 발췌)